

• 윤리와 사상 •

정답

1	③	2	④	3	①	4	④	5	③
6	⑤	7	①	8	⑤	9	⑤	10	②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②	19	②	20	④

해설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글쓴이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성찰을 통해 가지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2. [출제의도]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특징 및 관계 이해하기

그림의 A는 윤리 사상, B는 사회사상이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적이며 보편적인 관계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다.

3.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랑인 인(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서(恕)를 제시하였으며,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로 인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명(正名)을 덕치(德治) 실현의 기반으로 보았으며, 통치자의 수기안인(修己安人)을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동양의 자연관 이해하기

(가)는 유교, (나)는 불교, (다)는 도가 사상이다. 동양에서는 세계를 만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생의 자연관을 주장한다.

5.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연기에 근거하여 모든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무명은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② 석가모니는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인 삼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연기의 원리에 따라 만물이 생멸, 변화한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러면 극단적인 고행이 아니라 중도의 수행법인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이항로와 신기선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이항로, 혹은 신기선이다. 이항로는 유교적 가치를 지키고 서양의 문물은 나라에 해가 되기에 모두 찾아내 불태워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주장하였다. 신기선은 유교적 가치는 지키면서 주체적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이해하기

㉠은 보살이다. 보살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8.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지인(至人)을 제시하였다. 지인은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감으로써 일체의 분별을 없애 도달하게 되는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의 경지[逍遙]에 이른 존재이다.

9.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중생이 무지에서 벗어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부처가 된다고 보아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의 다양한 불교 이론과 종파의 주장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화쟁을 주장하였고 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다는 무예행을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원효는 당시 경전 해석을 두고 종파 간의 차이를 부정하고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이해하기

(가)의 같은 주희, 혹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성은 곧 이[性即理]라고 주장하며, 마음과 개별 사물들 모두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앎을 극진히 하려면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이므로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희와 왕수인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것과 도덕적 앎과 실천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오답풀이] 라. 왕수인은 누구나 양치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정치 사상 이해하기

같은 맹자, 혹은 순자이다. 맹자는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 그들이 항심(恒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생업[恒産]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교제할 수 있다는 민본주의적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이기적 본성을 후천적 노력과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예를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예치(禮治)를 주장하였다. 두 사상이 모두 군주는 인의(仁義)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영토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공동체인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다. 이 사회에서 백성들은 무지(無知)하고,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초월하여 소박하게 살아간다. 이를 위해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하였다.

13. [출제의도] 용수와 세친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중관 사상을 대표하는 용수, 혹은 유식 사상을 대표하는 세친이다. 중관 사상은 중도에 따라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관찰하는 일 즉 중관(中觀)을 강조하였다.

[오답풀이] ① 중관 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으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③ 유식 사상은 불변의 본질을 가진 객관적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유식 사상은 본래 의식(마음)에 불변의 본질이 없다는 진실을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모두 대승 불교이므로 중생의 구제와 자비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14. [출제의도] 이이와 이항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이이, 혹은 이항이다. 이이는 작용이 없는 이는 발(發)하는 까닭이고, 작용이 있는 기는 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七情)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이항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어서 이도 기처럼 운동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가. 감과 율의 공통점이다. 다. 율의 입장이다.

15. [출제의도] 정약용이 이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이항은 사단과 사덕이 모두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완전하고 순전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약용은 사덕은 인간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누구나 불인인자심(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면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중국 도교 사상 이해하기

황도학과(黃老學派)는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여 무위(無爲)로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하였다. 오두미교(五斗米教)는 교리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였다. 환학(玄學)은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인 청담(淸談)을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동학과 원불교 사상 이해하기

같은 동학 사상이 최시형, 혹은 원불교의 창시자 박종빈이다. 동학은 서학(西學)에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侍天主],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원불교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강조하며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교리를 체계화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학과 원불교는 모두 현세에서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성인이 제정한 예의를 배우고 익혀야만 사람들이 선하게 되고,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혜능, 혹은 지눌이다. 지눌은 절수의 구체적 방법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① 혜능은 진리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以心傳心]고 보았다. ② 혜능이 아니라 지눌의 입장이다. ③ 지눌은 불성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⑤ 선종에서는 교리 공부 보다는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였다.